

10년 뒤 내 일자리, 4차 산업혁명에 물어봐

10년 후 일자리의 미래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지음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스위스 USB은행이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준비 수준은 세계 25위에 머물렀다.

또한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38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됐다. 지난 2007년 최고 순위인 11위까지 올랐다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째 26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일자리를 빼앗을 게 분명하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의존하던 국가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에 비해 인공지능, 로봇, 드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나노 및 바이오기술 등 신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지음 '10년 후의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이 각광받을 것이다. <일상이상 제공>

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조망한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미래학과 미래예측, 4차 산업혁명 등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10년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대해 조점을 맞췄다. 문제인 대통령도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돌 만큼 관심을 쏟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겠다"는 복안이다. 그 연장선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의 일자리 창출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공공일자리 81만 여개를 늘리려면 막대한 세금 탓에 야권의 반대까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채용 제한 등과 맞물려 기업 측의 반발을 낚기도 쉽지 않다.

책은 향후 10년 후까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

은 제조업의 수출이 활력을 잃은 원인이 크다. 수년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국내 신규 채용은 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향후 10년 이내 우리나라 제조업 80만 명의 일자리와 서비스 분야 120만 명 일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과 디자인, 기획 마케팅 등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향후 성장할 분야는 ICT산업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다. 방위산업은 2022년 56억1000억~59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항공산업 종사자는 드론과 방위산업 발달로 2025년 7만 명으로 늘어난다.

에너지산업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산업과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용산업에서는 고객과 감정을 교류하는 메이크업아티스트와 웰스튜디너 등의 직업과 의료산업에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의 직업이 유망하다는 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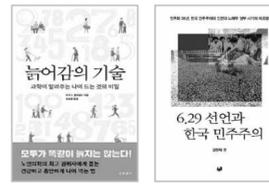
서비스산업에서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가사와 육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이 확산되면 물류배송 일자리는 줄 것으로 보인다. <일상이상·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심리학자 김태형은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에서 누구의 자존감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을 위하여 자존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해석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라고만 여겼던 자존감을 세간의 갈등과 혐오 현상, 약자 차별 등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 지어 새롭게 조망한다. 동시에 타인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진짜 자존감이야말로 공감형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갈매나무·1만4000원>

▲교사와 부모를 위한 발달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실천 세계의 한 가운데 있는 교사의 실천적 삶을 이론화한" 페다그고 프레네를 그려냈을 뿐 아니라 "여러 '프레네'를 가능하게 할 페다고지 담론의 시작"을 알리는 연구서다. 저자는 난해한 프레네의 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훌륭히 실려냈다. 덕분에 더 많은 독자들이 프레네 페다고지를 만날 수 있리라 기대한다. <실림터·1만8000원>

▲늦어감의 기술=저자 마크 E. 윌리엄스 박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병원에서 40여 년간 환자들을 만나온 노인의학의 최고 전문가다. 그는 사람들이 가진 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수많은 가능성이 낭비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삶의 마지막 날까지 충만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노화를 생물학·심리학·문



화·정치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이 책은 건강하고 풍요롭게 나이 들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현암사·1만6000원>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이 책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권위주의 세력 간 타협과 합의의 통해 이뤄 낸 한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만들어졌다. 노태우 정부는 그 기원이 권위주의 체제에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6·29 선언이라는 정치적 타협을 통한 새로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탄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투명했던 민주화 이후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했다. 그런 점에서 6·29 선언과 노태우 정부에 대한 연구는 그 이후 전개된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른길·2만원>

디지털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종이의 미래'

종이의 신 이야기

오다이라 가즈에 지음·오영연 옮김



롯데 화가, 북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 현재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이다.

그녀가 펴낸 '종이의 신 이야기'에는 종이와 사람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다. 잘 알지 못했던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종이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저자의 질문에 인터넷이들이 풀어놓은 다양한 종이 이야기는 그들의 삶과 추억까지 담겨 있어 흥미롭다. 저자

는 순식간에 쓰고 삭제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와 종이를 구별하고 싶어하는 애정을 담아 글을 썼고, 그 마음은 책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또 '종이'가 주인공인 책인만큼 앨범지, 미색백상지, 만화용지 등 다양한 종이로 인쇄해 만져보는 재미도 있다.

종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도 '포장'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포장해서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내용을 꺼내면 그 역할은 끝난다. 포장지는 잠깐 동안의 생명. 그러나 그 덧없는 한 순간에 점포의 위신과 긍지, 시대의 향기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872년 창업한 조제 약국 시세이도가 만드는 제과 브랜드 '시세이도 파라'의 포장지, 1856년 창업한 도쿄 과자점 '아오노스혼포'의 포장지 등에 얽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종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 아름다운 우표 디자인, 명함, 캘린더, 노트, 화지 등 다채로운 주제로 글이 전개된다.

책을 읽다보면 책 속에 등장하는 '실물'을 직접 보고, 만져 보고 싶어진다. 그런 독자들을 위한인지 100년 넘는 오래된 가계 15곳의 포장지를 함께 실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결국 사라지지 않을 '종이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왠지 든든하다.

<책읽는수요일·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소원자판기='소원 자판기'는 운동회 이어달리기 때문에 걱정하는 아우무가 수상한 자판기를 만나 '로켓 신발 스프레이'를 사면서 펼쳐지는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로켓 신발 스프레이의 도움을 받고도 결국 아우무는 운동회 이어달리기에서 꼴찌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달리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자 마음까지 먹게 된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일등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잘 못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이루라고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 주는 작품이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새로운 가족=제주의 맑은 바다와 더불어 살며 '꼬마악어 타코', '걸어가는 늑대들'이라는 두 권의 책을 완성한 바 있는 꼬마 동화작가 전이수가 '임양과 가족'을 주제로 한 '새로운 가족'을 출간했다. 전이수의 둘째 동생 전유정은 지적 장애가 있는 공계 입양된 아이이다. "유정이를 데리고 와서 힘든 점도 이야기하고 싶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는 이 꼬마 작가는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이란



존재는 소중한하다"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엘리·1만2000원> ▲기억을 자르는 가계

=이야기 미용사 '검은 고깔모자 아저씨'가 아이들의 지친 마음을 토닥여준다. 이 책의 주인공 현준이는 친구 동수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찾았던 '기억을 자르는 가계'에서 기억을 자르는 '검은 고깔모자 아저씨'에게 동수 기억을 모조리 잘라 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그런데 되레 현준이는 잊고 있었던 동수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도대체 현준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파랑새·1만1000원>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